

바로 보는 국어 모의고사 '오답노트'
이장우 | 박문각종로고시학원

1. 밑줄 친 부분이 문맥이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너무 서둘러 가다가 발목을 접질려 시큰시큰 아파 왔다.
- ② 그 집은 사방으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 ③ 그는 입안에 밥을 잔뜩 우겨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다.
- ④ 그녀는 앞서 달리던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선두로 들어왔다.

[정답] ③

[출제영역] 혼합 - 한글 맞춤법과 어휘

[난이도] 중

[정답률] 42%

[해설]

- ③ '옥이다+넣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인 '옥여넣다'가 맞다. '옥이다'는 '안쪽으로 조금 우그러져 있다'를 뜻하는 '옥다'의 사동사다. 따라서 밥을 잔뜩 '옥여넣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① 심한 충격을 받아 접혀서 뻘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는 말은 '접질리다'가 맞다. 따라서 활용할 때 '접질리(어간)+어(어미)'가 축약된 '접질려'가 바른 표현이다. '접질르다, 접질러, 접질른' 등은 비표준어이다.
- ② '둘러서 감싸다, 둥글게 에워싸다, 어떤 것을 행동이나 관심의 중심으로 삼는 것,'의 뜻일 때는 '두르(다)+싸이다'가 결합된 '둘러싸이다'를 쓰는 것이 맞다. '흙·돌 따위로 주위를 빙 돌아감에 겹겹이 포개어 엮는 것'을 뜻하는 '둘러쌓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다,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빠다, 일을 미루다'의 뜻일 때는 '제치다'가 바른 표현이다. '젓히다(윗부분을 뒤로 젓게 하다,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열다 등)와 헛갈리지 않도록 한다.

3. 다음 글과 관계 깊은 한자 성어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어 토끼가 달리다가 그루터기에 부딪쳐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밭을 갈던 쟁기는 놓아두고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다시 토끼를 얻기를 바랐으나 토끼를 다시 얻을 수 없었고,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② 어부지리(漁父之利)
- ③ 목불식정(目不識丁) ④ 칠전팔기(七顛八起)

[정답] ①

[출제영역] 어휘/한자 - 한자 성어

[난이도] 중

[정답률] 64%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솔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전통 사회에서 큰 뜻을 지녔었다. 한솔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정신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한솔밥이란 한 솔에 지은 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집에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온 불씨로 지은 밥을 뜻한다. 그러기에 사랑방에 잠자리를 얻어 자는 행객(行客)이나 행상에게 밥을 차려 낼 때에는 다른 솔에다 따로 불을 일으켜 밥을 지어 내거나, 반찬만 차려 내고 밥은 자신들이 지어 먹게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었다. 조상 전래의 신성한 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옛날에 불은 요즈음처럼 성냥만 그으면 얻어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분가하여 이사를 갈 때면 본가의 불씨를 나누어 들고 맨 먼저 새 집에 밥을 디터야 했다. 불씨는 혈통에 따라 전승됨으로써 혈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구심적(求心的) 접착제였던 것이다.

- ① 주제를 설명해 줄 뒷받침 문장이 부족하다.
- ② 논지에서 벗어난 구절이나 내용이 들어 있다.
- ③ 의견이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나타난다.
- ④ 접속 어구와 지시어의 적절하지 못하다.

[정답] ②

[출제영역] 비문학 - 단락 구성의 원리

[난이도] 중

[정답률] 66%

[해설]

제시문은 '전통 사회에서는 불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옛날에 불은 요즈음처럼 성냥만 그으면 얻어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은 '불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으로 주제(논지)에서 벗어나, 단락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①은 단락의 완결성 결여, ③, ④는 단락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설명이다.

1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오.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 하늘이드노.

- 신석정, '슬픈 구도' -

- ① 현실에 대한 희망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대상을 참신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지구는 현실적 세계, 별은 이상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답] ④

[출제영역] 현대 문학 - 현대시

[난이도] 중

[정답률] 32%

[해설]

이 시는 일제의 수탈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던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나라를 잃은 백성인 '나'는 이미 온전한 생명을 지닌 존재일 수 없다. 따라서 '슬픈 구도(構圖)'라는 회화적 제목은, 납작한 평면적 '구도' 속에 갇힌 '그림' 속의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 '별'로 상징되는 꿈과 이상조차 시적 자아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존재한다. 이 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형상화하여, 참담한 조국의 현실과 독립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① 절망적 어조가 나타나며, ② 정서적 등가물에 의한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으며, ③ 전이 현상에 따른 공감각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시각적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 다음 시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春來萬里客 보미 옛는 萬里(만리) 옛 나그네는
亂定幾年歸 亂(난)이긌 거든 어느 히에 도라가려뇨.
腸斷江城鴈 江城(강성)에 그러기
高高正北飛 노피 正(정)히 北(북)으로 느라가매 애틀 곳노라.

- 두보, '歸雁(귀안)' -

[출제영역] 문법 - 단어 형성법

[난이도] 중

[정답률] 33%

[해설]

제시문은 접사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파생어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다.

② 온(관형사, 전부의 또는 모두의) + 종일(명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강-'은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③ '날-'은 '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④ '맞-'은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